

삶의 운동의 소산 또는 사회번혁의 주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회는 책을 만들고 책은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민족은 책을 만들고 책은 민족을 만든다.

한권의 책은 한 개인 한 사회 한 민족의 주체적 삶의 총체적 소산이다. 살아 움직이는 개인과 사회와 민족은 스스로에 상응하는 책의 문화를 창출해낸다.

책의 문화는 개인적·사회적·민족적 삶의 운동이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나 사회적·민족적 삶에 있어서 번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한권의 책은 기획·집필·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책은 다시

한 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역사·사상 제요소가 집단적·총체적으로 가세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한 권의 책이란, 수다한 다른 책들의 논리와 사상과 정서에 직접 간접으로 규정받으면서 존재하고, 그것은 다시 다른 책들의 존재·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계기와 조건이 된다.

한 권의 책이란, 한 저자에 의해 태어나지 않는다. 책을 존재·발전하게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저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주체들인 출판인(사)과 독자,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있다. 새로 만들어져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책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상황 내

2만985종, 85년에는 3만3,743종이었으며 87년에는 3만8,200여종으로 집계되었다. 발행부수의 경우 1970년에는 484만622부였던 것이 75년에는 2,441만8058부였고 80년에는 6,460만9,972부였고 85년에는 1억1,497만 687부였고 다시 87년에는 1억5천600만부를 기록하고 있다(출협통계).

사회적 욕구, 생명력으로서의 베스트셀러

한 권의 베스트셀러란 동시대인들의 공동체 힘이자 집단적 심층심리이다. 한 권의 책이 집필되기까지는 저자의 가치관과 정서, 논리 구조에 규정받는다. 그러나 책을 기획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집필을 요구하며 원고를 받아 책을 형상화시키는 출판인(사)이 역시 그 내용을 규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책은 독자라는 사회적 조건에 내던져짐으로써 저자와 출판사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독자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하는 문제는 저자와 출판사의 영역 또는 영향권이 아니다. 독자라는 무정형의사회세력 내지 사회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대적·사회적 욕구에 그것은 귀속된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적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어떤 사상과 정서를 욕구하고 있는가를 저자와 출판사가 예리한 문제 의식으로 간파해내고 그에 상응하는 주제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의식·사회 의식,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문제 의식과 역량이 전제될 뿐이다.

베스트셀러라는 현상은 저자와 출판인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그것은 한 시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담하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사회적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움직이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사회란 분명 거대한 유기체적 생명력을 갖는 것이 라면, 베스트셀러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생명력을 담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잘 팔리는 책으로서의 베스트셀러는,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나와 명멸해가는 수다한 책들 가운데 강한 생명력을 갖는 것이자 그만큼의 개별 성과 보편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말한다. 일시적인 생명력을 갖는 순간의 베스트셀러가 존재하지만, 생명력·지구력을 갖고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셀러임은 물론이다. 베스트셀러에 대해 경시하는 우리 지식인사회의 시각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시기 시기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건강한 생명력을 확인하게 된다. 과연 베스트셀러가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는, 자못 권위주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 시대를 놓고 볼 때 역시 베스트셀러의 존재와 발전은 필연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 사회의 역동적 모습이 여기 있다.

이 시대 베스트셀러의 유형

동시대인들은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무엇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가.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70년대와 80년대의 그 구비구비 마다에 나타나서 무서운 생명력을 떨쳤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수다한 베스트셀러들. 우리는 동시대인들의 고뇌와 절망과 좌절,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 힘찬 저항과 생명력과 승리의 역정을 이들 베스트셀러를 통해 읽게 된다. 시·소설뿐 아니라 역사와 년픽션, 수상·사회비평 등이 골고루 베스트셀러의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서술방식에 있어서 부드러운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논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고 있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문학예술적 주제뿐 아니라 사회과학·철학·역사물들이 베스트셀러로 대거 등장함으로써 시대적·사회적 삶의 조건에 따라 독서양태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동시대인들의 역사적·사회적 운동에 대한 관심 및 행동적 실천을 또한 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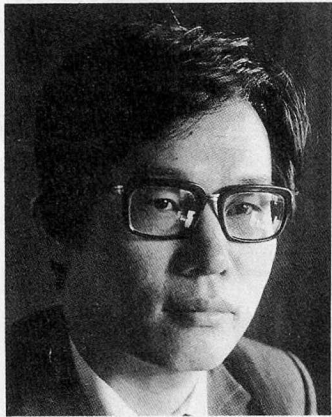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에 상응하는 독서관행을 역시 살필 수가 있다. 독서는 이념 내지 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정서적 즐거움 내지 여가를 위하여, 때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 세 목표는 상호 중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는 독서의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그것을 몇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문화사의 중추적 기원 내지 중심적 영역인 소설이 역시 베스트셀러를 주도한다. 그 문학적 성과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문학적 성과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소설들은 동시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 독서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 70년대 중·후반에는 「별들의 고향」(최인호),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객지」 「어둠의 자식들」(황석영), 「부초」(한수산) 등이 그것들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만다라」(김성동), 「사람의 아들」 「영웅시대」(이문열), 「인간시장」(김홍신), 「낮은데로 임하소서」(이청준), 「야훼의 밤」(조성기), 「손자방법」(정비석), 「단」(김정빈), 「상처」(김수현), 「숲속의 방」(강석경), 「장길산」(황석영), 「토지」(박경리), 「지리산」(이병주), 「태백산맥」(조정래) 등이 잘 읽히는 소설이었다. 특히 80년대에 「인간시장」시리즈는 1백만부를 훨씬 넘어서는 판매부수를 기록함으로써 한국 베스트셀러사에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

둘째, 우리 사회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집의 출판붐을 이루었고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집이 베스트셀러 대열의 선두에 섬으로써 시의 시대 또는 시집이 팔리는 사회가 되었다. 「오늘은 내가 발달로 떠도」 「내 영혼에 불을 놓아」(이해인), 「노동의 새벽」(박노해), 「홀로서기」(서정운), 「접시꽃 당신」(도종환), 「산골 소녀 옥진이시집」(김옥진), 「사랑굿」(김조혜) 등이 그것들이고 「타는 목마름으로」 「대설 남」(김지하), 「농무」(신경

우리시대 베스트셀러의 사회史

1 베스트셀러를 어떻게 볼 것인가



金彦鎬

출판인·한길사 대표

지 조건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독자라는 집단적 세력에 의해서 문제적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70년대의 책의 문화는 70년대의 사회번혁 내지 사회동태에 규정되고, 80년대의 책의 문화는 80년대의 사회번혁 내지 사회동태에 규정된다. 70년대의 책의 문화는 70년대를 극복하는 실천적 힘을 가지고, 80년대의 책의 문화는 80년대를 극복하는 실천적 힘을 가진다.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의 인구 대비를 보면 70년에는 48.2%(1천515만1천명)대 51.8%(3천143만5천명), 75년에는 38.2%(1천324만4천명) 대 61.8%(3천470만9천명), 80년에는 28.4%(1천82만7천명)대 71.6%(3천812만4천명)이었으며 85년에는 20.8%(852만1천명)대 79.2%(4천105만6천명)가 되고 있다.

전문대와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생 수의 경우 70년에는 17만명이던 것이 75년에는 23만5천명, 80년에는 59만7천명, 85년에는 126만명이었다. 중·고교생은 70년에는 198만명이던 것이 75년에는 314만9천명, 80년에는 416만8천명, 85년에는 493만4천명에 이르고 있다(경제기획원의 「한국통계연감」). 1인당 국민총생산액(GNP)은, 70년의 경우 38만8천원 이던 것이 75년에는 63만2천원, 80년에는 96만6천원, 다시 85년에는 126만4천원을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같은 시기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책을 창출했는가. 발행종수의 경우, 1970년에는 2,591종이던 것이 75년에는 9,225종, 80년에는

개인적·사회적·민족적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동시키는 번혁과 발전의 주체가 된다. 한 권의 책은 삶의 소산이지만 그 삶을 다시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논리구조를 갖는다.

7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는 번혁의 시대에 우리 사회는 책의 문화에 있어서 놀라운 질적·양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에 창출된 책의 문화는 번혁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실천적 삶의 소산이자 이 민족사회를 소망스러운 것으로 번혁시키는 하나의 주체로서 일정한 자기위치를 갖는다. 7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사회가 창출해낸 책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삶과 번혁의 이론과 실천, 정서와 논리를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직한 정신적 얼굴이다. 이 시대에 창출된 책의 문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적 상부구조와 물질적 하부구조를 살펴보는 작업이자 이 민족 사회의 사상과 행동, 정신적 삶의 역정을 규명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한 권의 책이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존재·발전하는 수다한 책들은 상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집단현상이다. 한 권의 책이란, 한 시대

림), 「신동엽 전집」 등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역시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세계, 수필·수상·에세이들이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주제와 수준을 담고 있는 이 책들은 때로는 지극한 일상적 생각과 이야기로 독자층을 확보한다.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박완서), 「한」(천경자), 「무소유」 「서 있는 사람들」(법정), 「대통령의 웃음」 「하늘을 우러러」(김동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안병욱), 「사랑을 위하여」(고은),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임국희), 「배짱으로 삼시다」(이시형),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 「두레박」(이해인),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그리운 말 한마디」(유안진) 등이 그 예에 속한다.

네째,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비롯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비평·고발,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 등을 다루는 주제들이 또한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서고 있다. 「민중과 사회」(한완상), 「교방동네 사람들」(이동철), 「옛날 옛날 한 옛날」(이창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오덕), 「철학에세이」(편집부),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이영희), 「유고」(조갑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란 무엇인가」(김용옥), 「밥」(김지하),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김중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민족사 전반 및 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체계적 인식, 분단시대·분단사회의 성격규명은 오늘 민족출판문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 내지 과제이자 이 시대의 진지한 젊은 독자층의 치열한 주제이다. 「한국사논」(이기백),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 외), 「민중경제론」 「민중과 경제」(박현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전철환 외) 등이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들이다.

이밖에, 번역된 여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번역된 책들은 외국의 대중문화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본격적인 문학작품이 있는가 하면 문명비평적인 것들도 있다. 「소유냐 삶이냐」(에리히 프롬), 「뿌리」(엘릭스 헤일리), 「모모」(미카엘 엔데), 「환상」(리처드 바크), 「불꽃의 여자」(시몬느 베뜨르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잉게술), 「하바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존 게이오스본), 「불확실성의 시대」(존 갈브레이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쥘 반니노 파레스키), 「아도라」(버트리스 스몰), 「백년동안의 고독」(가브리엘 마르케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레오 버스카글리아), 「아이아코크 자서전」(아이아코카), 「비밀일기」(스우타운센드), 「크놀프 : 삶으로부터의 세 이야기」(헤르만 헤세), 「꼬마 철학자 니콜라이」(알프스도데), 「철학이야기」(윌 듀란트), 「영웅문」(김용),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바스 콘셀로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대 베스트셀러의 내용구조

이같은 여러 유형의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국사회에서의 베스트셀러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정서적·논리적·사상적 조건을 현상적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어야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일까.

첫째, 궁극적으로 사랑을 담고 있어야 베스트셀러가 된다. 논술의 형식이야 어떠하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그 내용이 되지 않을 때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다.

사랑은 사람들의 멧힌 가슴을 따뜻한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다. 독서과정에서 독자들이

한권의 베스트셀러란 동시대인의 공동체협이자 집단적 심층심리이다.

즉, 베스트셀러라는 현상은 살아 움직이는 전체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발전과정의

정당한 현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건강한 베스트셀러문화가 필요하다.

사랑을 느껴야 한다.

사랑은 상처받고 분열된 마음, 고독한 정신을 어루만져주고 제자리에 놓아주는 치유와 통합의 기능을 한다. 분절된 것을 하나로 잇고, 외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 존재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 문학과 예술은 사랑의 언어로 삶을 꾸려나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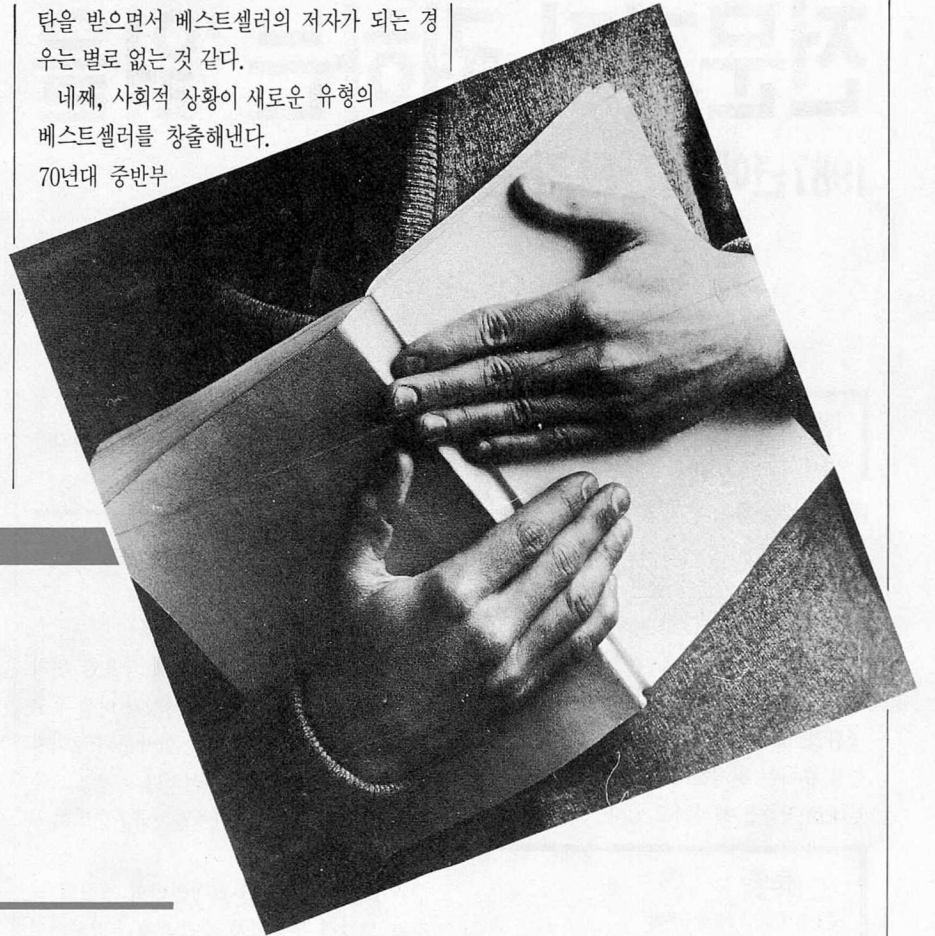
둘째, 우리시대의 베스트셀러는 인간해방의 사상과 논리를 담고 있다. 인간해방은 사랑에 비해 사회과학적·역사적 주제다. 사랑이 개인적 삶의 실존적 질료라면 해방은 사회적·민족적 삶의 구조적 질료라고 할 수 있다. 인간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민족의 해방과 통일, 사회적 모순의 극복은 바로 인간해방을 의미한다. 사랑과 해방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의 문제에 접근하는 상이한 시각 또는 접근방식이다. 이 분단된 민족의 현실, 부당하게 억압받는 이 민중의 삶에 대한 치열한 인식작업은 젊고 양심적인 독자대중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70년대 중·후반 이후 오늘에 오면서 우리 사회가 창출한 베스트셀러는 인간해방·민족해방을 사상적·논리적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주목한다.

세째, 저자의 개인적·사회적 삶의 진지한 자세가 독자의 공감을 얻어낸다. 불의와 허위가 아닌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며,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는 저자의 일관된 삶이 베스트셀러를 만든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그들을 위한 행동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독자대중들로부터 무섭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지

탄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째, 사회적 상황이 새로운 유형의 베스트셀러를 창출해낸다.

70년대 중반부



터 이땅의 지식인·노동자·학생들은 유신체제 및 그 연장선상에 서는 권위주의와의 격렬한 싸움을 전개해왔다. 10. 26과 5. 17을 겪었고 6월항쟁을 이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출판은 의식의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고 독서층의 양적·질적 확충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출판의 자유를 위한 권력과의 파나는 싸움의 과정에서 오히려 급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주제를 이끌어냈고, 이 같은 운동과정에서 일시적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읽히는 책들이 수다하게 창출되었다. 한 두종, 한 두권의 책이 아니라 수다한 책들의 저력 있는 판매량은 이땅에 출판의 시대를 열면서 베스트셀러의 내용과 규모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광범한 규모의 독자층 확보는 물론 대중사회의 오락적인 성격의 책들이 크게 읽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도의 의식화된 독자군과 대중적 독자군이라는 자못 대극적인 성격이 공존한다. 그러나 대중적 독자의 양적 성장은 출판문화의 저변구조로서 그 발전동인이 된다. 이 시대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들 대중적 독자군에 의해 지탱되는 터이다. 70년대에 몇 안되던 베스트셀러의 리스트가 80년대 이후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판매부수의 엄청난 증대는 사회 다른 부문의 질적·양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대중적 독자군의 존재에 근거한다. 한 사회의 변혁 운동이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 기반할 때 힘차게 진전된다는 명제가 여기에 확인된다.

아울러,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번역서보다는 우리 가슴 우리 머리 우리 손으로 만

든 책이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젊고 의욕있는 출판인들에 의해 우리 책 기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땅의 출판문화운동이 민족문화운동의 전위로서뿐 아니라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 매체가 정당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베스트셀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만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유통질서의 빈곤과 잘못된 제도 교육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공허하고 관념적인 언어유희로 현실매물·현실도피적이며 반사회적·반역사적인 내용이 때로는 베스트셀러로 조장되거나 분장되어 출현한다. 정상적인 국어교육·역사교육·사회교육이 제도교육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책을 읽히는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고,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중 매체의 민주화·민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건강한 베스트셀러 문화가 사회발전과정의 정당한 현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 20호분 · 값 1만원
전화문의 : 732-1431-3